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병삼



오늘은 전, 지리산 골짜기에 숨어살던 조식 선생이 출세한 제자와 함께 저녁 밥상을 맞았다. 내내 기름진 음식을 먹던 제자는 헐한 밥과 박한 찬이 목에 넘어가질 않았다. 선생이 한 마디 던졌다. “자넨 음식을 등으로 먹힐 뜻하는구먼!” 헐한 음식을 억지로 삼키려면 목울대를 물리고 등을 움찔해야 넘어가는 것을 두고, “등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음식은 창자를 채우기만 하면 될 뿐, 입맛에 집착하지 말라는 회초리다.

저녁 무렵 텔레비전을 켜면 언제나 먹을거리 타령이다. 이미엔 비질비질 땀을 흘리며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벌려 음식을 우적우적 씹는다. 또 그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얹지순가락을 쑥 내밀고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해가며 호들갑을 떤다. 먹는 음식을 두고 이런 추한 모습을 꼭 보여야 맛 기행이 되고, 고향 탐방이 되는 것일까 싶다.

50년 전 보리고개 시절 오늘의 풍요를 해아리지 못했듯, 또 머지않아 굽주의 때가 있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일. 그

래서 저 입들이 두려운 것이다. 문득 “음식에 탐닉하는 걸 비천하게 여기는 까닭은 고작 입의 육망에 휘둘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던 맹자의 말이 귀에 떠온다. 먹는 입은 더러워

소리를 내는 것은 짐승이다. 흰소리, 발립말, 거짓말은 새가 지저귀는 것이나 개가 짖는 것과 진짜 없다. 그러니까 말이 뜻을 잃고 소리로 떨어지면, 사람은 곧장 짐승으로 주락하는 것이다.

옛말에 “사람이 사람 짓 하기 어렵다” 라더니 말 한마디 잘못에 짐승이 되고 마는 삐이다. 그렇다면 또 알겠다. 불교에서 정구업진언(淨口業真言)이라, ‘입이 저지른 악업을 씻는 진언’을 외고 나서 익식을 시작하는 까닭을, 먹을거리에 집착하는 것이야 제 한 몸의 주집함에 그치지만, 말

더러운 입

지기 일쑤인 것이다.

음식을 삼키는 입보다 더 조심스런 것은 내뱉는 입이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들어있다. 하이데거의 말마따나 “인어는 존재의 짐이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흰소리를 자주 하면 사람이 실없어지는 것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모두 다 말은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 책임지지 못할 말, 거짓말은 ‘말’이 아니다. 말 속에 의미가 없고, 말 뒤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소리’일 뿐이다.

을 잘못 내뱉으면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말은 내뱉는 이의 사람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듣는 상대방이 있어 마련이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엮어서 공동체를 이뤄주는 매개체요, 공공재인 것이다. 한자어 신(信)을 세로로 쪼개면 사람(人)과 말(言)로 나눠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사람의 말, 즉 사람다운 말일 때라야 신뢰가 생긴다는 뜻이다. 신뢰가 사라지면 말은 소리로 추락하고, 사회는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공자가 “사람들 사이에 신뢰

가 없다면 공동체는 존재하지 못한다”(民無信不立)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유독 흑색선전이 창궐했다. 흑색선전은 오로지 상대방을 해코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악독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조직적으로 말을 파괴하는 것이다. ‘흰소리’도 사람을 실없게 만들 거늘 ‘검은소리’, 흑색선전이야 말할 게 있으랴.

한나라당의 중진인 김부성 의원은 선거과정이란 난장판이라며, 안철수 교수더러 “난장판인 선거전에 기ourt거리지 말고 강의나 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말인즉슨 말은 아닌 듯하나, 곰곰 생각하면 참 무섭다. 본인을 위시한 의원들이 모두 협잡과 사기, 거짓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난장판 출신이라는 자기고백으로 들려서다.

정치가가 자승자박하는 ‘소리’를 태연히 내뱉는 이 뻔뻔한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음식에 껌뻑대는 입이야 제 한 몸을 누추하게 만들 뿐이지만, 공공재인 말을 검은색으로 오염시켜 공동체를 망가뜨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더러운 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산대 교수·정치사상〉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재현

습관만 바꿔도 턱관절질환 예방

다. 관절원관장애의 발생 초기에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관절에서 달각거리는 소리가 나오거나 통증이 없다가 가끔씩 턱이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많이 진행되면 입이 벌어지지 않고 턱관절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턱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음식을 먹거나 턱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염증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면 턱관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턱근육병이 있을 때는 대부분 턱 근육의 통증 때문에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해진다. 턱 근육의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목, 어깨의 통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근긴장이나 근막통은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와 근육의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 그리고 근경련은 중증 원인이나 전해질 대사의 장애가 있을 때 잘 발생한다. 또한, 근육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턱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턱근육의 통증이 있으면 근육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근육에 축적된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또한 근육에 적절한 전기 자극을 주면 생리적 상태에서 실천하는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1~3주 간격으로 6~12개월 동안 치료를 하며, 이후에 효과가 없으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턱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은 일단 망가지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턱관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턱관절의 가장 큰 원인인 이를 가는 습관, 이를 악무는 습관, 입술이나 뺨을 깨무는 습관, 한쪽 이로만 씹는 습관, 턱을 과는 습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습관, 그리고 옆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는 습관 등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며 또는 긴장·스트레스·우울 그리고 불안감 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남대 치과병원 연구부장〉

턱관절은 양쪽 귀의 바로 앞에 있으며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동시에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말하는 것과 같은 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턱근육은 턱에 부착돼 있으면서 턱을 움직이게 하고, 턱의 위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턱관절장애는 크게 턱관절병과 턱근육병으로 구분된다.

관절원관장애에는 턱관절병의 대표적인 병으로 턱관절 속에 들어있는 원관(디스크)이 제 위치를 벗어나거나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고

장례문화 선진화 광주에서부터

친구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왔다.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경황이 없던 친구는 가장 먼저 나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전혀 준비를 못했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화장 등 장례절차를 물었다.

이런 경우 누구나 인터넷에서 ‘e-하늘장례정보’를 검색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락공원 화장장에 약속하여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광주 영락공원을 포함 전국 화장장의 예약 현황이 나와 있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시간대

별로 화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쉽게 화장장과 시간대를 잡을 수 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 영락공원은 지난 3월 일부 상조업체에 의해 상습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가 선점 예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화장과 장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예약을 마친 이후의 절차는 전국 자체 최초로 도입된 영락공원 시설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화장절차와 봉안당, 부부봉장묘, 가족봉안묘, 자연장 등 안치에 따른 장단점을 현장에서 유족에게 직접 안내하여 경황이 없는 유족이 편안하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달부터는 광주시 화장률이 2~3년 내 70%에 이를 것에 대비해 화장료 2기를 증

설해 모두 9기의 화장률로 가동하고 있고, 봉난방 시설을 갖춘 고인 주모공간 제례실과 유족대기실 및 영상실, PC실을 설치한 데 이어 화장 진행사항을 어느 곳에서나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첨단화해 이용 편리성을 높였다.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한 배려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주민에게만 장사시설을 개방하지만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 지역민에게도 사용료를 구분하여 장사시설을 개방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조의 묘를 개장하여 한곳으로 모설 수 있도록 봉안당과 자연장, 가족봉안묘의 안치를 개방해 국토이용의 효율화는 물론 선조와 후손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는 광주시민들이 제기해온 민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의 모태인 전남 지역 고향에 조상을 모셔온 후손들은 생활터전이 광주인 탓에 고향을 찾아 선조를 찾아 아끼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화장장 등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장사시설을 자진 유치하고 협력동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식당 및 매점, 비석과 유골함 등 부대사업의 운영권을 줌으로 지역민과 갈등을 없애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전체 묘역의 폐적한 조경 관리는 물론 곳곳에 꽃동산 등의 쉼터를 조성해 학생들이 소풍을 위해 찾는 폐적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표준을 만들고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한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직원들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죽음이 생의 한 부분으로 승화되는 명소가 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사업소장〉

덜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발견이 늦어 치료 시기도 놓치는 것이다.

젊은 여성분들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

우, 그리고 40대 이전이라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될 경우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늘어나는 20·30대 여성 위암 조기 진단 필요하다

젊은 위암 환자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젊은 위암 환자의 암세포는 공격적이어서 위벽을 파고들거나 다른 장기로 더 잘 전이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환자 중 나이가 든 사람보다 젊은층일수록 “내가 어떻게 벌써 암에 걸리겠는가?” 하며 암을 의심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기가 돼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위암은 남자보다 젊은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 전 보건당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위암 환자는 남성이 두 배 정도 많지만, 20~30대 젊은층에선 오히려 여성이 더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성荷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2-628/팩스 06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추곡 수매가 현실화로 ‘비축미 대란’ 막아야

농민들이 추곡 매입단가가 너무 낮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수매를 거부해 ‘공공비축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데도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목표 물량의 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국농민회 전남도 연맹에 따르면 전남지역에 배정된 2011년 산 공공비축미 물량은 조록 14만 3000t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0일 첫 수매에 들어간 공공비축미는 2주 동안 산물벼 2844t만을 매입, 전체 물량의 1.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매입가격이 1등급 40kg 1가마에 4만7000원으로 산지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해 농민들이 5000원 가량 높게 쳐주는 민간RPC(미국종합처리장)에 놓여 있다.

농민회가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에 나선 것도 주요 요인이다. 농민회는 전조비 매입을 시작하는 다음달 11일 각 시·군청 앞에서 일제히 공공비축미

거부 액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비축미 대란은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쌀시장 개방에 따라 정부수매체를 폐지,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쌀가격에 계속 개입하면서 쌀 정책의 균형을 훼손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자 민간RPC에 벼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듬해 쌀값이 올라도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쌀값이 오르자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했다. 그러나 보니 수확기 정부 매입 단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땅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느 농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에 나선 것도 주요 요인이다. 농민회는 전조비 매입을 시작하는 다음달 11일 각 시·군청 앞에서 일제히 공공비축미를 회복해야 한다.

성폭력 인화학교 재단 비리도 첨첩산중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재단 측의 자금 유용 등 비리 또한 ‘도가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원생 12명 외에 추가로 11명이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6명의 전현직 교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인화학교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8년 원생 12명 외에 추가로 11명이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6명의 전현직 교사들로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화학교 전 교장의 피해자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학교 법인인 ‘우석’에서 편법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당시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상이었다.

경찰은 이 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금고형을 받아 관련법상 퇴직금의 절반만 받아야 하지만 전액을 수령한 데다 연금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법인 측은 정부에서 지원한 장학금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2600여만 원도 유용했으며 간호사, 조리사, 위생원 등 3

無等鼓

최근 프로야구 KIA 타